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

- 『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임지연*

차 례

1. 서론
2. 세대론의 변화와 위계화
3. 청춘의 감수성이 존재하는 방식 : 불안
4. 신체의 강화와 지성으로서의 미(美)
5. 결론

본고는 1960년대 초반 『사상계』와 『여원』 두 잡지에서 구성되는 새세대론과 청춘담론이 변화·분화·생성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당대 구성된 청춘 여성담론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주류 세대담론에서 젠더화와 계층화의 구도를 통해 배제와 분화, 생성의 방식을 취하며 구성되었다. 담론은 무엇을 구성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가 문제라면 두 잡지의 분화양상의 움직임은 구도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사상계』에서 구성되는 새세대론은 4.19직후와 5.16이후로 구분된다. 4.19직후 새세대는 순수, 맑음, 저항의 전향적 표상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5.16직후 새세대는 혼란, 충동, 불안으로 변화된다. 새세대의 감성은 불안의 측면에서 다

*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루어지는데, 『사상계』는 실업난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다. 반면 『여원』에서는 불안의 감수성에 극단적으로 참여한다. 여성의 기본 조건은 불안 그 자체이며, 이 시기 청춘 여성이 존재하는 방식은 여성적 불안에 있었다. 『여원』에서 구성된 청춘 여성은 주류 세대론에서 배제되면서 불안의 존재조건을 형성하며 새로운 국가건설의 결핍의 주체로 호명되고 있다.

새세대는 젊은 신체에 관심을 갖는다. 『사상계』에서 성문제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데, 결혼전 성행위와 같은 성적 장치는 중산층이 아닌 청년과 젊은 여성은 배제되고 청년 대학생만이 허용된다. 젠더화와 계층화에 의해 동시에 분할된다. 『여원』에서 신체는 보다 섬세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신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강화된다.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카니발적 관심은 지성미와 관련된 때만 의미를 갖는다. 세대론에서 배제되면서 구성된 청춘으로서의 신체는 공적인 것(지성적인 것)을 재포획하려는 은밀한 욕망을 드러낸다.

핵심어 : 사상계, 여원, 새세대론, 청춘담론, 청춘의 감수성, 여성적 불안, 젠더화, 계층화, 신체, 지성미

1. 서론

1960년대 초반은 격동기였다. 4·19혁명과 자유당정권의 몰락,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상황은 다중성, 격동성, 가능성¹⁾이 혼종하고, 다양한 권력들이 길항하며 재편성되는 특이한 역사적 시기였다.

이 혼란의 격동기에 지식인들은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았고, 지식인의 중심부에 청년, 대학생, 새 세대, 여대생 등이 존재했다. 지식인들은 청년, 대학생, 새 세대들을 세대론이나 세대교체²⁾론으로 구성해 나갔다. 구

1)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2003, 겨울호), p.303.

2) 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요청되는 새로운 주체세력을 호명하며 기성세대와 새 세대와의 대립구도로 담론화된 것이 '세대'론이라면, 세대교체론은 박정희정권이 권력을

질서를 대표하는 노쇠하고 늙은 이미지의 이승만정권의 몰락 후, 새 역사와 새 국가에 대한 열망은 젊고 순수하고 역동적인 새 세대를 역사적 주체로 호명하게 된다.

청년으로 대표되는 새세대론은 특정한 실체를 포괄하는 자명한 역사적 개념은 아니다. 사실 새세대라는 담론³⁾의 내부는 없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부단히 젊은 세대, 신세대, 새로운 세대, 청년(들), 청년 집단, 청년 계층, 젊은이, 젊은 사람들, 대학생, 여대생, 지식여성, 청년학생, 청소년, 사춘기, 결혼적령기의 청년들, 소녀, 청춘⁴⁾ 등 같은 내용의 수많은 이름을 호명하는 반복행위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선택된 배제를 통해 구성되는 방식들, 그리고 효과화되는 방식들이 이 시기 담론의 내포와 외연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새세대론의 구성방식은 젠더화⁵⁾와 계층화의 특징을 갖는다. 이른바

잡으면서 정치적으로 담론화한 것이다. 63, 64년도에 이르면 ‘세대교체’라는 용어는 정치적 영역을 넘어 전사회 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된다.

3) 푸코에 의하면 담론이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다. 담론은 무엇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다. 금지나 분할, 배척과 같은 배제의 외부적 과정과, 반복해서 말해지는 주석,분류의 원리로서의 저자같은 배제의 내부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미셸 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pp.10~26 참조.

4) 젊은 세대, 새세대, 청년, 젊은이, 대학생 등은 『사상계』와 『여원』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사상계』는 주로 ‘젊은 세대’, ‘신세대’, ‘젊은 남녀’, ‘젊은 사람들’, ‘청소년’, ‘학생’, ‘대학생’, ‘젊은 인텔리’, ‘청년 집단’ 등으로 지칭된다. 반면 『여원』은 ‘여성’, ‘여자’, ‘여류’, ‘소녀’, ‘여학생’, ‘여대생’, ‘도시 여성’, ‘현대 여성’, ‘결혼적령기의 청년들’, ‘사춘기’, ‘미녀’, ‘치녀성’, ‘청춘’ 등으로 일컬어진다.

5) 『사상계』와 『여원』에 나타난 지식인의 역할을 젠더분할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로 김미란의 논문이 있다. 세대론이 근대적 주체를 창출하면서 『사상계』는 남성중심의 사회정치적 주체로, 『여원』은 연애와 가정의 사적 영역에서의 근대주체로 젠더화된다는 입장의 논문이다. 김미란, 『김승옥 문학의 개인화 전략과 젠더』, (연세대 박사논문, 2005).

그러나 본고는 두 잡지에 나타나는 젠더화의 결과가 아니라, 젠더화의 과정에 주목한다. 『사상계』의 새세대론은 분할의 층위가 단지 젠더화 뿐 아니라, 계층화의 구

‘청년’은 젠더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된 듯하지만, 실은 당시의 2, 30대 남성들을 가리키는 것⁶⁾이었다. 새세대론의 주축은 ‘모든’ 젊은 남녀라기 보다 젊은 남성 지식인들이었다. 여성 또는 젊은 여성 지식인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며 세대론은 분할되었다. 동시에 배제의 주체인 남성지식인들은 새세대의 범주를 남성/대학생으로 한정하고, 대학생 또는 중산층 이하의 젊은 남성들을 배제하며 새세대의 정체성을 계층화한다. 또한 배제된 젊은 여성지식인들은 젊은 여성과 젊지 않은 여성으로 끊임없이 분화되고, 젊은 여성들도 소녀와 젊은 여성으로 신체의 특징에 따라 세분된다.

60년대 초반 새세대론과 청춘담론의 구성양상을 『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사상계』는 편집위원 뿐 아니라, 주요 필진이 지식인 남성이며, 당대의 지식인 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월간지 형식의 종합잡지이다. 장준하를 위시하여 박종홍, 안병욱, 이만갑, 김성식 등은 주요 국립대 인문학계열의 교수들로서 당대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한 이론적 성찰을 피하며 근대화된 국가건설에 앞장섰던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근대화의 주체를 중산층⁷⁾이라고 제시하였던 만큼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 남성 중심의 공적 담론들을 생산해낸 잡지의 특성을 지닌다. 『여원』은 “모든 여성들의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어 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제공”⁸⁾하

도로 재분화되며, 내부적으로 변화의 계기가 존재한다. 『여원』의 여성담론 역시 『사상계』주류 새세대담론의 단순한 배제의 결과만은 아니며 그것의 효과로 새롭게 생성되면서 재포획하려는 복잡한 욕망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작동되는 새세대담론은 배제와 배제의 결과라는 매끈한 분할의 선이 아니라, 배제와 생성, 배제되는 내부담론의 굴곡, 배제의 재포획이 작동되는 움직이는 맥락들의 걸을 보아야 할 것이다.

6) 김미란, 앞의 글, p.32.

7) 노영기,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p.177.

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였다. 특히 “지식과 교양”이라는 여성 잡지의 목표에 부합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굽히지 않고 유지”했다는 자평을 할 만큼 여성 지식층을 겨냥한 텍스트다. 두 잡지가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의 특정한 면모⁹⁾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60년대 초반 새세대담론의 분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고 보여진다.

『사상계』가 남성지식인 중심이며 세대론 구성에 있어 주류의 역할을 하였다면, 『여원』은 주류남성지식인의 범주에서 배제되면서 여성/청춘담론을 생성해간다. 이 시기 주류로서의 새세대론은 고정된 하나의 균질적인 담론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변화되면서 자체 내로 분화(계층화)되어가는 요철화의 양상을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청춘 담론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주류담론과의 관계망 속에서 배제와 생성, 배제의 재포획이라는 메카니즘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배제와 생성, 재포획의 구체적인 작용에서 결과되는 담론의 분화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새세대론은 청년, 젊은이, 새로운 세대, 대학생, 여대생, 사춘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된다. 청년 또는 새세대의 내포는 20, 30대 젊은 남

8) 창간사, 『여성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여원』, (1955. 10).

9) 『여원』 역시 여성대중들의 서구화된 당대의 취미나 기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중잡지의 성격과 아울러 상당히 정치에 민감한 면모를 보여준다. 60년대 초반 급변하는 정치정세의 국면마다 상당히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반응을 보인다. 가령 5·16 혁명공약이 그대로 게재되거나, 5·16 군정기간에 펼쳐졌던 ‘재건국민운동’의 본부장을 맡았던 유진오에 대한 집중 소개(『불요불굴의 농학도-유달영』, 『여원』, 1960. 12, ~ 1961. 2(3회)) 『남편 유달영을 말한다』, 『여원』, (1962. 8)), 62년 통화개혁은 1달만에 해제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주부들의 생활지도에 가까운 기사(고연기, 『통화개혁과 주부의 새생활』, 『여원』, (1962. 7)), 대선을 앞두고 유영수를 통해 박정희를 부각하는 기사(『과목·침착·신념에 사는 사람 유영수』, 『여원』, (1963. 1)) 등을 통해서 『여원』의 정치성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성 지식인이라고 할 때 제도적으로 배제된 젊은 여성 지식인이나, 지식인이 아닌 젊은 남성·여성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담론이란 규정된 실체라기보다 구성하는 방식 그 자체이며 그것의 효과라고 본다면, 담론의 결과물이거나 부산물인 효과의 측면을 드러내주는 ‘청춘’이라는 용어¹⁰⁾가 이 시기 새세대론의 다양한 개념들을 담아내기에 적합할 것이다. ‘청춘’은 새싹이 돋는 봄철이나 젊은 나이를 표상하는 말이다. 60년대 초반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순수성, 역동성, 반항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근대화된 국가건설의 동력으로 삼았던 시대적 담론은 사실 ‘청춘’이라는 어떤 분위기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새세대론과 그것의 효과인 청춘담론이 『사상계』와 『여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상계』의 세대론의 분화양상 또한 함께 고찰되며 『여원』에서의 청춘담론이 복잡다기하게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세대론의 변화와 위계화

4·19에 의해 새롭게 부각된 새세대는 『사상계』지식인들에 의해 새역사의 창조적 주체¹¹⁾로 공고화된다. 지식인들에게 해방의 혼란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 미국에 의한 원조경제라는 상

10) ‘새세대’나 ‘청춘’은 서로 다르면서 일정한 연관 속에 있다. 새세대론이 60년대 초반 보편적인 청년담론을 개념화한 것이라면, ‘청춘’은 개별적으로 구현되는 효과나 분위기로 나타난다. 당대 ‘청춘’이라는 용어는 새세대를 감성적 차원에서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11) 특히 『사상계』는 청년학생과 지식인의 사상을 개혁하는데 주력하고 청년학생은 잡지이념의 실현체로 상정하였으며, 청년학생의 자아확립을 통한 주체적 근대화를 지향한 지식인잡지였다.

이용성, 『한국지식인 잡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6), p.132.

황은 ‘한국=후진성(국)’의 공식으로 현실을 인식¹²⁾하게 하였다. 그것은 끊임없는 구세대와 새세대간의 대결구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늘날 기성의 구세대들은 사십대와 오십대가 다르고, 육십대, 칠십대가 또한 틀린다. 그러나 구세대의 사상적 바탕과 배경의 공약수를 찾는다면, 대체로 전통적인 유교적 교양과 윤리미에서 자랐고, 또 일제압박하에서 민족주의적인 의식과 감정속에서 산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십대의 신세대들은 해방후의 무질서와 혼란과 동란속에서 자랐다. 민족주의적인 사상감정보다도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분과 의식속에서 성장했고, 유교적 교양과 윤리보다도 서양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속에서 자랐다. 민족과 국가와 점잖음과 지조와 예의와 체면과 삼강오륜이 구세대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한다면, 개인과 연애와 다방과 데이트와 춤과 타산과 당구와 자유로운 감정표시와 와일드한 행동 등은 신세대에 친근감을 주는 말들이다. ¹³⁾

『사상계』의 주요 필진이며 50년대부터 상임편집위원으로 활동하던 안병욱의 글이다. 그는 4·19이전부터 젊은 세대에 관심을 표명하였던 인물인 만큼 4·19혁명의 주요세력이었던 신세대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시도한다. 그에게 세대는 “같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태에서 탄생하여 유사한 세계관, 교양, 도덕 및 예술감정을 갖는” “동년자들의 일군, 역사적 동시성”으로 파악된다. 즉 세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개념이었다. 4, 50대 이상과 2, 30대를 생물학적 세대로 나누는 통념은 이후 세대론의 기본전제가 된다.

12) 후진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은 “우리 민족의 질병은 체질적인 만성병이고 그 병인(病因)은 우리 역사와 국민성에서 찾아야 될”(최기일, 『이 시대의 지도자』, 『사상계』, (1960. 9)) 것이었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연상시킬 만큼 악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13) 안병욱, 『리의 세대와 義의 세대』, 『사상계』, (1960. 6), p.102.

이 글의 목적은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늙고 부패하고 무능한 구세대를 몰아낼 수 있는 역사적 힘은 새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구세대 또는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유교적 교양과 윤리 밑에서 자란 구정치인, 사회지도자들을 일컫는다.¹⁴⁾ 이들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利의 세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세대에 대한 새세대의 반항은 역사적 불가피성을 갖는다. “그들은 순수한 세대요, 행동하는 세대요, 역사와 더불어 전진하는 세대요, 불의앞에 분노하고 항거하는 세대”라는 점이 부각¹⁵⁾된다.

4·19의 역사적 평가를 세대론의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글의 특이점은 새세대가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의 주체로 인식되면서도 동시에 감수성의 차원에서 고찰한다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새세대는 “개인, 연애, 다방, 데이트, 춤과 같은 자유로운 감정표현과 와일드한 행동”으로 표상된다. 당대 젊은 청년들은 연애나 다방, 데이트, 춤과 같은 자유로운 행동은 불건전한 것으로 불온시 되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의 자유분방한 감수성을 새세대론의 논리속으로 끌어들이는 이 글은 4·19직후라는 시대적 배경 안에서만 가능했다. 이후 새세대론은 더욱 지성적인 것으로 정교화되면서 청년의 감성은 세대론 밖에서 구성된다. 61년 5·16과 63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새세대론의 비판적 재검토 작업은 발달한 감성을 혼란성과 불안으로 전치하

14) 『사상계』의 근대화론은 반전통에 있었던 만큼 구세대에 대한 범주를 전통성, 유교적 윤리로 한정하는데 더욱 골몰하였다. 전통=구세대이며 근대화=새세대라는 논리가 바탕에 있다.

15) 현승중,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 『사상계』, (1961. 4)
 유석진, 『신세대와 구세대간의 알력』, 『사상계』, (1961. 4)
 송건호, 『세대론』, 『사상계』, (1962. 12)
 지명관, 『젊은 세대의 자기주장』, 『사상계』, (1963. 3)
 임방현, 『새세대는 건강한가』, 『사상계』, (1963. 4)

며 비판의 거점으로 삼게 된다.

4.19직후의 새세대론은 구세대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반복된다. 4·19 당시 대학생의 구호가 “기성세대 물러가라”의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은 구세대 또는 기성세대를 현실정치에서 후퇴시키는 것이었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주체세력으로 20, 30대의 젊은이들을 포괄적으로 호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새세대는 청년/대학생들이라는 한정된 범주 안에서 논의¹⁶⁾되었다.

『사상계』는 4·19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젊은 여성/여대생들은 거의 언급이 없으면서도, 군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4·19 이전부터 사상계 지식인들은 젊은 청년 장교들에 대한 관심은 컸다. 아시아 후진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으로 주목¹⁷⁾받았던 군인에 대하여 4·19 당시 “군인이 발표하지 않았다는데 이번 학생운동의 특색”¹⁸⁾이 있다고 할 만큼 전향적으로 인식했다. 새세대 담론이 이후 5.16군사 쿠데타에 대해 일시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한 셈이다. 그만큼 세대론은 위력적인 것이었다.

4·19직후의 새세대론은 5·16을 거치면서 대학/대학생의 범주로 한정되기 시작한다. 대학과 국가이념을 동일시하면서 대학 내의 구조적

16) “이 중대한 시기에 처하여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할 민족의 동량(棟樑)은 탁고기명(托孤寄命)의 청년이요, 학생이요, 새로운 세대임을 확신”(권두언, 『사상계』, (1962. 4)하면서 4.19를 재평가하고 있다.

17) 경제학자 로스토우의 경제이론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목받았으며,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서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 로스토우는 아시아 후진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전근대적 생산관계와 관계없는, 도시출신이 아닌 군인에 관심을 두었다.

박태균,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2004. 봄), pp.156~159 참조.

18) 김성식, 『학생과 자유민권운동』, 『사상계』, (1960. 6), p.70.

문제와 대학생의 일상적 생활로 초점은 이동된다. 대학의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¹⁹⁾하는 데 있었다. 계속적인 혁명의 완결은 지도자의 자격에 달렸으며, 그 임무는 대학에 맡겨지게 된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생은 혁명적 역동성을 거세당하며 근대화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그물망 안으로 포섭된다. 가령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꾀하며 조직과 기구상의 개선점을 문교부 산하 평의원 제도를 구상하거나, 중앙집권적 행정간소화, 대학원의 강화²⁰⁾에 두고 있기도 하다. 대학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은 국가제도, 대학제도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²¹⁾

대학제도 밖의 젊은 청년들은 새역사 건설의 주체 바깥에서 존재하게 되므로, 이 시기 새세대론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제 새세대 담론은 대학 제도 안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청년/대학생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앙케이트를 통해 대학생의 의식을 조사²²⁾하거나, 대학생 개인의 리포트²³⁾ 형식으로 씌어진 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 대학생에 대한 관심은 「캠퍼스 동정」²⁴⁾이라는 한 쪽짜리 기사를 통해 대학 내의 일상적 풍경을 그리는 수준에서 머문다.

19) 김중환, 「국가이념과 대학의 목적」, 『사상계』, (1961. 4), p.152.

20) 이인기, 「국립대학수준향상을 위한 기구개선」, 『사상계』, (1961. 4)

21) 유진오, 「우리나라 대학의 회고와 전망」, 『사상계』, (1962. 4)

김경수, 「대학정비방법의 구체안」, 『사상계』, (1961. 4)

22) 홍승직, 「보고조사-대학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사상계』, (1962. 4)

23) 김인수, 「캠퍼스 리포트 불꺼진 대학가 한 남자대학생이 말하는 고민」, 『사상계』, (1962. 4)

김영자, 「캠퍼스 리포트 부화직전의 불안-한 여자대학생이 말하는 고민」, 『사상계』, (1962. 4)

24) 「캠퍼스 동정」은 1963년 7월부터 시작된 한 쪽짜리 기사이다. 대학 내의 일상적 사건, 이슈를 담아내고 있다.

이 시기에 비판적으로 세대론을 검토한 임방현의 글²⁵⁾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대론을 실천이론으로까지 고양하기 위해서 “평면적 사물관과 계량적 세대관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 그의 세대론은 4, 50대와 2, 30대를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면서 2, 30대의 새세대를 다시 30대와 20대로 구분하고 있다. 4·19당시 “초조한 방관자요 안타까운 동조자”였던 30대를 “회의와 망서림의 세대”라고 규명한다. 또한 20대를 “아메리카니즘의 속성이라고 할 직선적 행동과 실리에 밝은 타산”에 영향을 받은 “충동과 행동의 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30대가 행동성이 부족하다면, 20대는 지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30대와 20대를 세분하는 것은 새세대를 비판하기 위한 예비작업인 셈이다. 4.19직후 새세대에 대한 환호는 이제 과학적이고 지성적 검토라는 명제하에 결핍의 세대로 부각되고 있다.

4·19직후에 표상되었던 순수한 저항, 불의 앞에 분노하는 깨끗한 행동보다는 충동으로서의 행동성으로 20대를 특징화 한다. 또한 “개인과 연애와 다방과 데이트와 춤과 타산과 당구와 자유로운 감정표시와 와일드한 행동”²⁶⁾에 대한 새세대의 감수성은 “과학적 인식”을 요구하면서 삭제된다. 그들은 과학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충동적 행동만을 가진 집단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리고 30대를 “초조한 방관자”, “안타까운 동조자”로 평가하면서 새세대론 안에서 부차적인 지위로 구성한다. 결국 새세대론은 담론 내부에서 20대 청년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30대로 분화되고 있다. 또한 4·19 직후 열광과 환호로 호명되었던 새세대는 이제 비판과 재검토의 대상이 될 만큼 결핍의 세대로 구성된다.

세대론은 이미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잡은 현실정치 안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새세대론 자체가 대항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기

25) 임방현, 앞의 글.

26) 안병욱, 앞의 글, p.102.

때문에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세대론의 저항성은 무력화되면서 파편화의 양상을 띤다. 이후 청년 지식인들의 표상이었던 순수성, 역동성, 저항성, 행동성은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비순수나 혼란, 심리적 불안으로 변화²⁷⁾된다. 말하자면 새세대론의 내포는 순수와 저항에서 충동과 혼란, 불안의 심리적 영역으로 이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60년대 초반 새세대론이 뽑어내는 청춘의 감수성은 순수, 저항, 행동, 혼란, 불안의 정서로 요약될 수 있다.

3. 청춘의 감수성이 존재하는 방식 : 불안

『사상계』에서 세대론은 4·19직후와 그 이후에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새세대론이 감수성의 영역에서 구현될 때는 불안과 연관될 때이다. 62년 이후 『사상계』에서는 혼란한 현실정치와 미래에 대한 젊은이 특유의 불안감을 사회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대학졸업후의 실업난과 관련된 불안에 집중된다. 반면 『여원』에서는 세대론에 의해 유포된 구세대와 새세대의 대립적 특징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 『여원』은 새세대에 대한 긍정적 표상보다는 여성적 존재에 대한 불안한 감성들을 드러내는데 주력한다. 불안은 여성에게 보다 본질적으로 체화된 감성이었다.

27) 변화의 과정에는 새세대에 대한 비판 작업이 매개되어 있다. “기성세대 운운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신세대 자신의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현승중, 『강의·시험·씨클』, 『사상계』, (1962. 4), p.109.)이라거나 “왜 대학생들의 선언문이 담백하고 솔직하지 못하냐 말이다. 왜 선언문이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이며 번문옥례적(繁文縟禮的)이고 애매하고 초점을 잃고 쓰고 있느냐”(김성식, 『생각있는 자 먼저 나서라』, 『사상계』, (1963. 7), p.44)와 같이 새세대를 겨냥한 비판들이 있다.

1958년 대학졸업자의 취직상황을 보면 졸업생 15, 899명 중 3, 946명이 겨우 취직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나머지 일만 이천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는 여학생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또 군대에 입대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자, 외국에 유학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들도 다음에는 모두 어떤 직장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적어도 대학졸업생의 약 반수는 당장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멀지 않은 장래에 실업자가 될 운명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중략)…한국의 대학생의 대량실업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중대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요소이며 그것이 일일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²⁸⁾

『사상계』의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글쓰기의 방식은 점점 통계자료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인용문 역시 대학졸업자의 취직율과 실업율을 통계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는 원조경제를 면하지 못했으며, 62년부터 64년까지 경제개발 계획안의 수정과 보완수립²⁹⁾ 과정기간이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실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제난속에서 실업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실업문제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고등 실업자로 당연시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불안요소로 떠오르는 취직률과 실업문제는 남자 대학생의 문제일 뿐이었다.

『캠퍼스·리포트』³⁰⁾는 남녀 대학생의 고민과 불안을 고백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남자 대학생이 말하는 고민은 대학의 무질서와 인텔리의 실업문제였다. 졸업 이후의 실업문제나 현재의 생활고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고민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여자 대학생이 말하는 고민은

28) 이만갑, 『사회불안의 전위·인텔리 실업자』, 『사상계』, (1961. 2), pp.51~52.

29) 박태균, 『1961~1964년 군사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 수정』,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학회, 2006. 6. 참조.

30) 김인수, 앞의 글.

경제난과 야심의 감소, 가정 내의 갈등, 여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알 수 없는 불안이다. 경제난은 부모들이 높은 학비를 감당하면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기대감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업과 같은 구체적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내면성에 관한 문제들, 즉 입학초기에 가졌던 야망이 현실을 체험하면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나, 연애와 관련하여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약한 여자다운 불안”³¹⁾을 토로한다. 새 세대론을 구성하면서 여학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사상계』에서 굳이 여학생의 불안에 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불안의 정서에도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젠더적 차이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상계』가 다분히 남자 대학생의 사회 정치적 불안에 대해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나갔다면 『여원』은 젊은 세대의 기본조건을 ‘불안’으로 인식하면서 불안의 감수성을 다각적으로 구성한다.

갖 스물이 될까말까한 소녀도 저마다 고상한 명곡만 찾아 시합이나 하듯 합창을 하고 - 카르딜로의 『콜랜 그라또 (무정한 마음)』 푸치니의 『별은 빛나건만』 도니젯티의 『남몰래 흘린 눈물』 등 또 다른 패거리들은 맑스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한국판 민주주의가 이러쿵 저러쿵 토론이 벌어졌다. …(중략)… 밤 열한시까지인 폭발하는 젊은 음성이 알콜과 함께 그들의 청춘을 흔들게 하고 가난을 마시고 세계를 집어 삼킨다. …(중략)… 살아있는 형체들. 그리고 젊다는 용기가 허용되지 못한 이 좁은 바닥에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학생들은 누구의 탓일지…(중략)… 울분과 불만은 짜즈나 트위스트로도 안돼… 결국은 알콜의 승강기를 타고 발악하는 청춘들아…³²⁾

31) 김영자, 앞의 글, p.133.

32) 최희숙, 『르뽀르따이쥬 특집 한국의 청춘- 악을 쓰는 젊은이의 음지』, 『여원』, (1964. 6), pp.158~159.

명동 뒷골목에 있는 ‘학사주점’³³⁾이라는 술집 풍경이다. 대학생들의 내적 울분이나 불안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쿵 저러쿵 토론”, “폭발하는 젊은 음성”, “알콜”, “울분과 불만”, “찌즈나 트위스트”, “발악하는 청춘”과 같은 말들은 불안한 청춘에 대한 수사들이다. 청춘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 르뽀의 형식을 띠고 있어 더욱 현장감 있게 당대 청춘들의 풍속에 접근하고 있다. 대학생, 직장여성, 농촌의 청춘여성, 공장의 젊은 여성, 야외의 청춘들, 다방과 음악감상실, 대폿집의 청춘들을 대상으로 젊은 청춘남녀의 내면의 분위기와 감수성을 접사의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대학생들을 표상하는 이미지는 “정열과 울분”, “불안과 불만”으로 집중된다. 울분과 불만과 불안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단지 불안한 시대적 상황이라는 배경설명이 있을 뿐이다. 감수성으로 접근해 들어간 청춘의 실체는 불안한 분위기 그것 이외에는 없다. 여기에서 4·19직후에 구성되었던 새역사의 주체인 새세대의 순수나 맑음, 깨끗함, 저항의 표상은 어디에도 없다. 새세대가 구성되는 방식은 청춘의 분위기, 그것도 불안한 내면으로서의 감성일 뿐이었다.

젊은 여성들의 불안의식은 자살로 극단화된다. 실제 이 시기 소년소녀들의 자살사건이 빈발했다고 한다. 1960년 8월과 9월 사이에 두 여고생 자살사건, 3부녀 자살사건, 세 청년의 자살극, 국민학교 아동의 출가 자살, 세 소년의 할복자살³⁴⁾이 발생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첩에 항의하면서 자살한 딸을 따라 그 어머니도 자살하는 사건³⁵⁾이 있었고, 20대

33) “명동 뒷골목에 찌부러진 모습으로 있는 이 주점은 청춘의 타협과 불안을 가득 토해내는 하나의 응집실. 학사들 사십여 명이 씨클단체이 형식으로 하나이 영리목적인 아니라 이익금이 나오는데로 농촌계몽을 위해 주력한다는 것에 이채로움이 있다.” 최희숙, 앞의 글. p.158.

34) 『국내의 움직임』, 『사상계』, (1960. 10)

35) 성백선, 『자살론』, 『여원』, (1961. 2)

의 잘생긴 청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살하면서 20일전부터 자살과정을 글로 써서 신동문 시인에게 보내온 일기³⁶⁾가 『여원』에 그대로 실리기도 하였다. 자살사건이 빈발했던 새세대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보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수한 현실에 대한 분석은 “불건전하고 병든 인간상의 그 시대정신”³⁷⁾이나 “청년기의 자살은 시대사조에 따라 유행되는 경향”³⁸⁾이 있다고만 진단된다. 특히 자살과 관련하여 소녀적 감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녀적 감성은 “연약한 새 싹과 같은”³⁹⁾ 이미지로 표상되면서 이들이 가지는 불안은 “인간이면 지녀야 할 당연한 것이고 인간이라는 숙명적인 불안”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소녀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맑은 이성과 사고력”, “내면의 생활”, “지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성의 불안은 남자 대학생의 실업문제나 경제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영역이 아니라, “숙명적 불안”, “막연한 불안”이라는 비현실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즉 불안은 성숙한 인간이 되기 이전인 소녀적 감성과 숙명적 불안이라는 비현실적 실존론으로 치환되고 있다.

세대론은 집단성과 국가이념의 연관 속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공리가 국가 이익에 선행될 여지는 없⁴⁰⁾으며, 4·19직후의 세대론이 군사정권의 국가이념에 배치되자 집단으로서의 세대는 무력화되고 파편화의 양상을 띤다. 무력화된 새세대론은 새세대가 가지는 정신적 불안에 주목한다. 특히 불안과 우울은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6) 「내 무덤에도 꽃은 필까-어느 청춘이 남긴 수기」, 『여원』, (1964. 6), 참조.

37) 임방현, 「자살의 심리와 윤리」, 『여원』, (1962. 11), p.251.

38) 성백선, 앞의 글, p.110.

39) 신지식, 「소녀의 불안과 염원」, 『여원』, (1962. 8), p.87.

40) 허은, 「5·16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역사문제연구』, (2003. 11), p.39.

특히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욱 불안이 많다고 합니다… (중략)…사실 여성은 불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사춘기의 불안,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불안, 남편에 대한 불안, 임신에 대한 불안 등등 부지기수로 많습니다.⁴¹⁾

‘여성의 불안’은 특집으로 기획될 만큼 당대 여성의 키워드였다. 남성보다 여성은 불안의식이 더 많다고 진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사춘기, 연애와 결혼, 임신과 출산, 남편과 자녀, 갱년기에 대한 불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전 삶이 불안의 연속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적 불안론인 셈이다. “불안의식을 어떻게 초극하고 행복을 찾아야겠습니까?”라는 편집자주는 불안의 해소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의 기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안은 “불안은 아주 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질병과 같이 불가피한 것이고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입니다”⁴²⁾라는 정도에서 제출된다. 여성의 불안은 숙명적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불안을 불식할 방법은 없으며 심지어 불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청춘의 감수성으로서의 여성의 불안은 숙명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로 고착화된다. 4·19직후에 유포되었던 새세대론의 순수와 저항의 전향적 분위기는 이 시기 『여원』의 청춘담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5·16이후의 불안과 충동이라는 변화된 담론에 극단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 시기 청춘 여성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본질적 차원의 ‘여성적 불안’에 있었다.

이와 같이 당대 청춘이 가지는 감수성은 울분과 불만, 자살, 특히 지

41) 『특집 여성의 불안- 불안의 시대』, 『여원』, (1962. 3), p.93.

42) 박래현, 『특집 여성의 불안- 기획되는 곳에 불안』, 『여원』, (1962. 3), p.97.

성결핍으로서의 소녀적 감성과 연동하는 불안으로 집약된다.

『사상계』는 젊은이 특유의 불안을 실업난과 같은 경제적 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해갔다. 『여원』에서 나타나는 여성적 불안의 감수성은 보다 본질적이며 숙명적인 것으로 고착화된다. 불안은 여성이라는 존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극복될 수도 없고, 극복할 필요도 없었다. 극심한 불안의 공포는 청춘의 자살에까지 극단화된다. 『여원』에 나타난 청춘의 감수성은 5·16이후 변화된 세대론의 극단을 보여준다. 여성은 특히 젊은 여성은 불안을 삶의 조건으로 하는 새세대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국가 건설의 주체로 창출되기에는 어떤 결핍의 요소가 있는 존재로 표상된다. 따라서 『여원』의 청춘/여성인 새세대라는 역사 집단에서 배제된 채 불안한 주체로 존재하며 근대화된 국가의 아슬아슬한 그림자 국민으로 호명되고 있었던 셈이다.

4. 신체의 강화와 지성으로서의 미(美)

60년대 초반 근대화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역사주체로 부각된 새세대담론은 신체의 영역에서 재생산된다. 젊은 신체는 성과 사랑, 인구와 산아제한과 같은 근대화의 핵심적 요소들이 생산될 수 있는 통과지점이었다. 특히 새세대론의 효과인 청춘들은 감수성, 즉 감각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과편화된 개인들이면서 집단이었다. 감각이란 신체의 발견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청춘의 감수성은 신체를 가로지르며 효과적으로 발화된다.

신체는 개인의 독자적 경험하면서도 일반의 측면에서 비개인적 존재라는 애매성⁴³⁾을 특징으로 한다. 즉 신체는 실존하는 실재이면서 그 실

43) 메를로-퐁티는 신체란 세계-에의 존재로서 세계와 주체(신체)가 피비우스스피처럼

재자체는 구성의 효과로서 실재한다. 60년대 초반 청년의 신체는 국가주의 신체규율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체험화된 개인의 신체로 존재한다.

『사상계』는 국가이데올로그들에 의해 공적 담론을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작업이 일차적이었기 때문에 새세대들의 신체, 성과 연애에 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만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과 관련된다는 한에서만 언표화한다.

자녀를 많이 두고 싶은 것이 본능이라면 이 본능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서양각국의 사람들은 참으로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적으로 늘어가는 식구를 보고 손뼉을 치고 기뻐할 동안 서양사람들은 하나나 둘이라고 세계 어디에 내어 놓든지 빼앗기고 우수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자녀만 만드는데 승리감을 가지고 있다.⁴⁴⁾

그런 경우(젊은이들이 결혼전 성행위를 한 경우-필자) 그들의 걱정은 남자보다 여자의 행실에 대해서 한결 걱정하고 있다. 처녀성을 잃으면 장차 결혼에 중대한 핸디캡을 갖는다는 것이 아마 초대의 이유일 것이다. 물론 남학생의 경우도 결혼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소망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남자가 동정을 잃는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들어서 공부를 착실히 못하게 되어 방탕하고 불량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략)… 그런데 사실상 건전한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류 이하의 계급에 있어서의 성행위의 문란이다.⁴⁵⁾

첫째 인용문이 씌어진 시기는 아직 산아제한이 국가적으로 요청되던

연동하며, 습관적 신체와 현실적 신체의 층으로 구성되고, 보면서 보여지는 존재이며, 수동이면서 능동인 애매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참조.

44) 고헌경, 『산아제한의 국가적 의의』, 『사상계』, (1960. 4), p.138.

45) 이만갑, 『성의 사회적 해조와 가치』, 『사상계』, (1960. 8), p.222.

때가 아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된 인구 제한론⁴⁶⁾일 뿐이다. 그럼에도 성(sexuality) 또는 신체가 사회·국가적인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산아제한”이라는 생식행동의 사회관리화는 성에 대한 금지나 억압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 오히려 부부중심의 근대적 가족제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식능력을 가진 남녀에게 성적 욕망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에서 “산아제한”이라는 개념은 아직 생소한 서구적 개념이었다. 산아제한은 근대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근대적인 가족제도의 확립과 우수한 국민을 생산하는 근대적 개념으로 여겨졌다.

두 번째 인용문 역시 사회적인 차원에서 성의 문제를 접근⁴⁷⁾한다. 결혼 전 성행위에 대해서 중류층 이상의 남자, 즉 “남자 대학생”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처녀성의 상실이 “결혼의 핸디캡”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란한 성행위를 야기하는 계층은 “중류 이하 계층”이다. “충분한 교양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청춘의 성담론에도 배제의 선이 동일하게 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과 대학생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청년에게 결혼 전 성행위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남자 대학생”에게만 배려된 성적 장치이다. 성담론에서 중산층 이하의 청년이 배제되는 과정을 보면 젠더화의 분할 뿐 아니라, 계층화의 구도가 작용하고 있어 젊은 신체는 훨씬 더

46) 당시 경제이론은 인구증가율과 투자율의 비율에 따라 과도적 사회단계인지, 비약의 시기에 있는 경제단계인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었다. 그만큼 인구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로스도우, 『비공산당선언-경제성장단계설』, 『사상계』, (1960. 1), 참조.

47) 『사상계』는 이 시기 『20세기와 성』이라는 특집을 낸다. 『성의 실존적 고찰』, 『성욕=심리현상의 동인』, 『성의 사회적 해조와 가치』가 실린다. 이후 유사한 기획은 없었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신체는 국가·사회 안에서 강화되면서도, 계층화, 젠더화로 분화되고 있다.

『여원』에서는 보다 섬세하고 다양하게 신체와 관련한 성적 욕망의 장치들이 나타난다. 성적 욕망의 장치는 점점 더 세밀하게 신체를 쇠신하고 병합하고 꾸며내고 통찰하며 점점 더 폭넓게 통제⁴⁸⁾하며 신체의 강화에 결부된다. 『사상계』에서 다루었던 산아제한과 같은 신체권력의 문제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신체 그 자체 또는 신체의 아름다움이라는 보다 자율적인 것⁴⁹⁾으로 담론화되고 있다.

『여원』에서 성과 신체는 강박적일만큼 지속적으로 말해져야 할 무엇이었다. 여성의 신체는 사춘기 소녀와 결혼 적령기의 여성, 모성으로서의 여성, 갱년기의 여성 등 세심하게 층화된다. 특히 청춘으로서의 여성은 사춘기와 결혼적령기의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신체는 모성성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의 신체는 가족과 결혼제도에 거리를 뒀으로써 훨씬 성과 신체 그 자체에 몰입되는 경향⁵⁰⁾을 보여준다.

사춘기의 소녀는 극심한 불안을 특징으로 한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갖가지 욕구와 불만에 가득차고 자그마한 자극에도 동요되기 쉬운”⁵¹⁾ 심리적 특징은 불완전한 신체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사춘기 소녀의 신체는 그래서 항상 성교육의 수준에서 다루어진다.

48)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제1권 앎의 의지』, (나남출판, 1990), p.120.

49)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p.62.

50) 신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여성을 성으로만 환원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여성의 몸이 정치적 몸에서 벗어나서 여성이라는 성에만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육체적 무질서로 재번역될 수 있다.

모이라 게이트스, 박찬길 역, 『정치적 몸의(과) 육체적 대표성』,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p.170~171 참조.

51) 임흥빈, 『꿈과 반항과 도피』, 『여원』, (1962. 4), p.76.

불안정한 신체와 심리구조는 자살론과 결부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기의 자살사건은 사춘기 소녀들에서 빈발했던 만큼 자살을 문화적 유행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자살은 “문화발전에 따른 향락욕과 태타욕(怠惰慾)과 사치욕”에 기인한 “좋지 못한 사상의 결과”⁵²⁾로 인식했다. 그리고 사춘기 자살을 극복할 방법은 “결혼”에 있다고 보았다. 청춘기의 여성들도 사춘기와 비사춘기 여성으로 구분된다는 점, 사춘기 소녀를 신체발달의 완성기인 결혼적령기의 여성에 대한 결핍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청춘 여성 내부의 분화양상을 보여준다.

신체는 성적인 것이면서도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이해되었다. “싱싱하고 병 없는 생활은 비단 신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으며, “정신적 정서적 영역”에서도 싱싱해야 했다. 건강은 물질적인 신체의 차원보다 정신병리학적 차원에서 더 밀도 있게 다루었다. 건강상담 코너인 『여원병원』에서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온 것은 “노이로제”였다. “죄의식의 노이로제”, “처녀성”⁵³⁾에 대한 문제가 대하증이나 월경불순과 같은 외적 건강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의 젊은이는 고독과 불안과 긴장을 매일 호흡”하므로 정신병리학적 차원에서 건강을 치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해법은 “민주사회로의 길”⁵⁴⁾로 나아가며 기존 구세대의 권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여성들의 젊은 신체 드러내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것이 성과 관련되었든, 아름다움과 관련되었든, 또는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신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할 대상이었다. 얼굴의 아름다움이 입, 눈, 코, 눈썹, 턱, 두발 등으로 분해되어 미적 표준이 세분화⁵⁵⁾되고, 미

52) 장병림, 『자살론』, 『여원』, (1962. 4), p.82.

53) 좌담, 『당신의 건강을 진단하는 ‘여원병원』, 『여원』, (1964. 9)

54) 황정규, 『행동의 병리학』, 『여원』, (1964. 5)

55) 편집부, 『부분적 표준론』, 『여원』, (1961. 5)

스 코리아⁵⁶), 젊은 여배우⁵⁷)에 대한 관심은 젊은 여성의 외적인 미에 환호를 보여준다. 댄스 개방론, 정조론 등을 통해 사회적 금기와 투쟁하는 진보성을 신체에 각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의학을 통한 정형술⁵⁸), 유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⁵⁹)을 논하면서 신체는 과학의 합리성과 진보성의 이미지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신체 자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체와 성교육론이 진행된다. 이때 “여성의 성욕”과 “남성의 성욕”은 “소극성”과 “공격성”⁶⁰)으로 구분된다. 신체를 자연물로 이해하게 하는 이러한 담론구성방식은 남녀의 차이(차별)를 객관적으로 긍정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의 성욕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계몽하는데 착안된 신체 자연론은 당대 청춘담론에 있어서 신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신체의 카니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신체는 말해지고 또 말해져야 하는 무엇이었다.

그러나 젊은 신체에 대한 카니발적 관심은 지성과 이성, 교양의 틀 안에서 형성될 수 있었다. 개인의 성욕과 정조의 시비와 성형적 아름다

56) 『특집 미스코리아, 그 영광과 행복』, 『여원』, (1963. 8)

57) 노일, 『앙겔뜨에 나타난 한국배우의 유형』, 『여원』, (1961. 9)

『콤비 대담 한쌍의 청춘 스타』, 『여원』, (1964. 4)

특히 엄앵란은 여대생 출신 배우라는 점에서 지적인 배우로 주목받았다. 엄앵란 자신도 연애와 결혼에 대하여 “자기자신이 냉정한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현명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며 여대생 배우로서의 지성적 특징을 부각한다. 엄앵란의 학사출신 배우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글은 그 외에도 계속된다. (엄앵란, 『은막의 문턱에서』, 『여원』, (1963.2), 박계주, 『지성미의 학사배우 엄앵란』, 『여원』, (1963. 3)) 이런 점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던 속성들을 지녀야만 근대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p.46.)는 언술은 의미있다.

58) 정성채, 『미녀를 만드는 현대의학』, 『여원』, (1961. 5)

59) 김유하, 『유전·발육·운동』, 『여원』, (1961. 5)

60) 한국남, 『청춘의 생리적 욕망』, 『여원』, (1961. 3), p.111.

움이 과감하게 말해질 수 있는 한도는 거기까지였다. 모든 발달한 신체는 지성미와 교양미가 깃들여야만 존재의미를 부여받았다.

육체미란 그것이 푸주간에 걸린 고기덩어리가 아닌 이상 이 내적인 아름다움인 지성미와의 융화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중략)… 특히 대화에서 그 사람의 교양과 지적 수준이 발로되는 율이 많으므로 이면을 소홀히 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말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비단 미감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 민족의 지적 수준과 문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⁶¹⁾

위 인용문에서처럼 지성미가 융화되지 않은 “육체미”는 “푸주간에 걸린 고기덩어리”에 불과했다. 지성미의 결합이라는 공식은 천편일률적으로 유포되었다.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해 무수히 많은 발화가 있었지만 그것의 핵심은 지성미와의 연관성이었다. 방점은 지성미에 있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미인이란 교양에의 길을 꾸준히 닦는 여인”⁶²⁾이라는 정의는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의 입에서 나왔다. 62년에 이루어진 결혼적령기의 청춘들이 아내와 남편을 고르는 조건⁶³⁾에서 3위가 “교양”이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이 젊은 여성을 고르는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에게 필요한 자질은 교양, 즉 지성, 이성, 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의 영역이었다.

위 인용문에서 지성미와 육체미의 결합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전제조건이었으며, 그것은 민족과 국가의 지적 수준과 관련된다. 청춘담론에 구성된 개인의 신체는 완벽하게 자율적인 신체가 아니었다. 60년대 초반 세대론이 공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면, 여원에

51) 유현목, 「여성이어 아름다워라」, 『여원』, (1961. 5), p.188.

62) 『특집 미스코리아, 그 영광과 행복』, 앞의 글, p.113.

63) 『특집 결혼의 조건』, 『여원』, (1962. 6)

서 구성되는 청춘담론은 어느 정도 자율적인 것이면서도 공적인 것(지성)과 관련하려는 욕망을 숨기면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세대론으로부터 배제되면서 구성된 청춘/여성 담론은 역설적 방식으로 주류 담론을 재포획하려는 주체의 은밀한 욕망을 드러낸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성/청춘의 표상은 완결적인 자율성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상계』의 남성 지식인 중심의 주류 새세대론에 의해 배제되면서 생성되고 또 재포획의 욕망을 드러내며 구성된 것이다. 본고는 담론들이 무엇을 구성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담론들은 무엇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과정 그 자체이며 상대 담론들과 교호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원』을 중심으로 60년대 초반의 여성/청춘 담론은 『사상계』와 같은 주류 새세대담론의 젠더화·계층화로 분화되는 배제과정과, 여성/청춘 내부의 신체의 세분화를 통한 세대론적 분할이라는 복합적인 생성과 교호작용을 통해 구성되었다. 더욱이 주류담론으로서의 『사상계』 새세대담론 역시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4·19직후의 새세대론과 5·16이후의 새세대론의 내용은 굴절의 계기를 갖을 뿐 아니라, 이들의 새세대론 역시 ‘대학생’과 ‘중산층 이하의 대학생이지 않은 젊은이’로 분할되며, 20대와 30대를 세분화하는 작용과 함께 여대생 또는 젊은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구성되어졌다.

따라서 이 두 잡지에서 나타나는 새세대론과 여성/청춘 담론은 배제와 배제의 결과 또는 젠더화와 계층화의 결과라는 매끈한 구도에서 형

성된 것이 아니다. 배제와 형성, 젠더화와 계층화, 내부적인 세대화 등 등 복잡다기한 계기들의 접점⁶⁴⁾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상계』와 『여원』에서 생성되는 각각의 담론들의 성격 역시 하나의 단일한 새세대론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분화되고 자체적으로 계층화되는 요철화의 구도를 보여준다.

60년대 초반 『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성/청춘 담론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담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의 특이한 특성을 보여준다. 『사상계』의 새세대담론은 4·19직후의 순수와 맑음, 저항과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같은 긍정적 표상에서 5·16이후 비순수와 혼란, 충동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표상으로 전이된다. 이때 『여원』은 새세대에 대한 긍정적 표상보다 여성적 존재에 대한 불안한 감성들을 드러내는데 주목한다. 불안은 젊은 여성에게 본질적으로 체화된 감성이었다. 이 시기 새국가 건설의 역사적 주체로서의 청춘/여성주체는 불안하고 결핍된 그림자 국민이라는 존재방식으로 구성되어졌다.

청춘의 감수성은 신체의 감각을 발견하는 데 있었다. 『사상계』가 국가와 사회 안에서 강화되면서 계층화 젠더화로 분화되는 신체에 주목했다면, 『여원』에서는 신체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다. 특히 신체의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성의 젊은 신체 드러내기를 통해 신체를

64) 세대화와 젠더화의 복잡한 접점은 두 잡지의 문학란, 특히 시비평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사상계』의 시비평은 유종호, 김춘수, 성찬경, 김수영 등에 의해 노장파 시인들의 시가 배제되고 이른바 전후 소장파의 시인들에 주목하면서 시단의 ‘세대교체’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상계 신인문학상’ 제도를 통해 신인들의 “새로운 목소리”를 요구한다. 『여원』에서도 ‘여류신인상’ 제도를 통해 여류신인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계 신인문학상’이 신인들의 미적 자질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반해 ‘여류신인상’ 제도는 선자(選者)들의 개인적 취향을 재생산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여원』의 『독자문예』에서 생산되는 무명여류시인들의 선별 기준이 “아담한 서정시”, “암전한 서정시”라는 젠더화된 여류문학의 문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화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화한다. 신체의 물질적 측면인 외면의 특성들을 과도하게 부각하면서도 신체의 아름다움은 지성미와 같은 내적 아름다움의 한계 안에서 존재할 수 있었다.

□

1. 기본자료

『사상계』, 『여원』

2. 단행본 및 논문

김건우, 『사상계와 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모이라 케이트스, 박찬길 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제1권 삶의 의지』, (나남출판, 1990).

미셸 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정용욱 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과 지식인』, (선인, 2004).

김미란, 『김승옥 문학의 개인화 전략과 젠더』, (연세대 박사논문, 2005).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인하대 박사 논문, 2003).

박태균, 『로스토헤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2004. 봄).

박태균, 『1961~1964년 군사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 수정』,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06. 6).

이완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 『1960년대 정치 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이용성, 『한국지식인 잡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6).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2003, 겨울호).

좌 담, 「4월 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2).

허 은, 「5·16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역사문제연구』, (2003. 11).

Abstract

Symbols of Female/Youth presented in the magazines
in the early 1960s

- Focusing on 『*The Sa-sang-ge*』 and 『*The Yeo-won*』-

Im, Ji-Yeon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how the discourses on New generation as well as on Youth, presented in two representative magazines in the early-1960s, *The Sa-sang-ge* and *The Yeo-won*, had been changed, diverged and created. In particular, the way of the composition of Female-Youth discourse was never autonomous in that it was related to be excluded, diverged, and recreated by the gendering and the staging under the major discourse on the Generation. It deserves careful attention to examine the moving framework of diverging aspects of both magazines because the significant issue on discourse is not what it composed of, but how it is composed.

The theory of New Generation in *The Sa-sang-ge* was bisected shortly after the Revolution of April, 19 and after the Military Change of Government of May, 16. In other words, the former generation symbolized purity, clarity, and resistance. The latter generation, however, was transformed into disorder, impulse, and anxiety. The sensitivity of new generation was touched on primarily with regard of anxiety. On the other hand, *The Yeo-won* dealt with the sensitivity of anxiety by participating in it more radically. Namely,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female was anxiety *per se*, so the existence of female youth in this period lay in the female anxiety. The female youth, had been consisted of in *The Yeo-won*, was called as the subject of deficiency in the field of the establishment of new nation by being eliminated from the major theory of Generation and forming the existence of anxiety.

The new generation took much interest in the young body. *The Sa-sang-ge* treated sexuality partially, for instance, the sexual mechanism like the sexual behavior before marriage was restricted on the young university students by excluding both the female youth and the youth without belonging to the middle class. This shows that sexuality was also divided simultaneously by means of the gendering and the staging. *The Yeo-won* treated body more delicately and diversely and focused on the interest in body *per se*. The carnival-like interests in the bodily beauty acquire significance within the limit of the beauty of intellect. The body as youth, made by being excluded from the theory of Generation, reveals the hidden desire which attempts to recapture the public, or the intellect.

Key words : *The Sa-sang-ge*, *The Yeo-won*, theory of New Generation, discourse on Youth, sensitivity of youth, female anxiety, gendering, body, beauty of intellect, emerging poet, obscure poetess.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